

중등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분석

Analysis Study for understanding the Pre-Service Teachers' View about Middle School Teacher's Role

이혜정

한남대학교 교직과

Hye-Jeung Lee(kl0705@hnu.ac.kr)

요약

본 연구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을 분석,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반성적 글쓰기를 실시하고, Colaizzi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중등교육의 의미를 공감과 발견으로, 중등교사의 역할을 공감과 소통을 통한 꿈의 발견과 이의 실현을 위한 교과전문가로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형성은 경험과 이상의 불일치라는 과거 학교교육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 역할 인식은 기존 교직관에 비추어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삶의 맥락에 주목한 지속적인 인식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중등교사 역할은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역할과는 다르며 이로 인해 이들이 학교현장에서 겪게 될 정체성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등교육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성찰자로서의 면모는 교사전문성을 위한 정체성 확립 및 교육개혁의 근간으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임용고시준비로 운영되는 현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수자, 예비교사들의 반성과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예비교사 | 중등교사의 역할 | 공감 | 꿈의 발견 | 교과 전문가 | 성찰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iew of pre-service teachers' about middle school teacher's role using reflective writing. Pre-service teachers considered meaning of education is sympathy and discovery. Therefore they considered middle school teacher's role is discoverer of dream and subject master. The consideration of pre-service teachers' about education and middle school teacher's role was affected by their schooling experience.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the view of pre-service teachers' about teacher's role must not judgement according as former grouping on teaching profession. Second, The view of pre-service teachers about middle school teacher's role is different with reality. So middle school management should be improve to minimize foreseeing dilemma. Third, To do improve pre-service teachers' reflecting thought, various opportunity should be supported. Forth, it is need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reflection for pre-service teachers' curriculum.

■ keyword : | Pre-service Teacher | Middle School Teacher' s Role | Sympathy | Discover of Dream | Reflecting |

* 본 연구는 한남대학교 2013년도 교비학술비로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4년 03월 17일

수정일자 : 2014년 04월 09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4월 11일

교신저자 : 이혜정, e-mail : kl0705@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초·중등교육법 제41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45조). 그럼에도 우리나라 중등학교는 대학입학을 위한 준비교육기관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입학을 위한 입시위주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중등학교는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고 대학진학률에 따라 학교의 선호도와 평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중등교사의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과 좌절,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입시위주 교육체계 속에서 수업능력과 진학결과만을 기준으로 교사의 능력이 평가되고, 입시학원 강사와 교사의 수업능력을 비교당하며, 여기에 더해 학교의 전인교육이라는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인격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함께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혁신의 주체자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갈수록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으로 사범대학 입학생과 예비교사교육과정 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다. 사회변화, 경제적 여건의 약화 등의 영향으로 교직을 단순히 안정적인 생계수단으로 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치열한 교원임용을 위해 예비교사교육과정이 임용고사준비과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교사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향후 우리나라 중등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역할은 ‘교사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기대에 따라 한 교사가 수행하는 행동’으로 학생의 배움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연구는 유아교사나 초등교사 역할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 연구들[3][4]에 비해 매우 미미한 편이다. 관련 연구들[5][6]도 초·중·고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교직원이나 교과의 특수성에 따른 담당교과별 교사의

역할을 제시할 뿐 중등교육의 목적에 주목한 논의는 별로 없다. 이는 대학입학이 중등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육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적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등교사를 꿈꾸는 예비교사들도 중등교사의 역할을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지 혹은 아닌지,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이해는 21세기 중등교육의 방향과 질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학습자로서의 그들의 이해를 통해 예비교사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교육에 대한 내면구조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다. 예비교사들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역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학 이전의 교육적 경험, 사회와 시대의 변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삶의 맥락 속에서의 이해 필요성에 주목하여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반성적 글쓰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반성적 글쓰기는 응답자의 자유로운 글 구성과 의미표현을 통해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문제가 되는 순간들과 의미를 기술하는 다양한 경험적 재료’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져다준 의미에 의해 현상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중등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의 역할 인식을 이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본 연구결과는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있는 학습자로서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이해, 예비교사 교육과정 개선, 그리고 반성적 글쓰기를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역할

교사는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21조)로, '교사의 역할'은 '교사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기대에 따라 한 교사가 수행하는 행동'이다. 교사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부합되어 담당해야 할 역할이나, 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준거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21세기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역할들에 대한 연구들[9-11]은 교사의 역할을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제시하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행하게 되는 역할들에 주목하여 논의하고 있다. 김남순[9]은 교사의 역할을 교과지도영역과 관련되는 형식적 역할과 생활지도영역과 관련되는 비형식적 역할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윤혜성[10]은 전통주의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에 따라 훈육자, 인격감화자, 부모대행인, 상담자, 교과수업전문가, 교육과정운영자, 학급운영자, 평가자, 사회화를 돕는, 예술가의 역할 등을 제시한다. Heck & Williams[11]은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학교환경의 현실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교육현실을 어떻게 조건화하고, 조건화되는가에 주목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보호, 지원, 보완, 양육, 상호작용, 실험, 창조, 계획, 열망, 문제해결, 도전의 11가지로 제시하기도 한다.

둘째, 교사의 역할을 역할 수행시 유념해야 할 준거에 비추어 논의한 연구들[12-14]은 교직의 직업적 특성에 주목한다. 이들 논의들은 교사 역할은 학생과의 '전문적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성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내적 기준으로 교사가 교사인 것은 '인간됨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같은 맥락에서 고재천[12]도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은 가르치는 과정적 역할 그 자체라고 보면서 학생들이 보다 높은 품위의 단계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적 활동에 가치를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모든 성장과 발달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 인격 뿐 아니라 윤리

적 감수성과 용기가 필요함을 주장한다[14].

셋째, 21세기 사회변화에 주목한 논의들은 교사의 역할을 교육본질 회복으로 또는 학교혁신의 주체로 규정한다. 교육의 본질 회복에 입각한 논의들[10][15]은 오늘날 교육이 인력개발과 경영의 관점으로 운영되면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비인간화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의 회복을 위해 교사는 학교교육현장에서 사라져가는 '교육적인 것'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학생에게 도덕적 품성을 가르쳐야한다. 교사의 역할을 학교혁신의 주체로 보는 논의들[16][17]은 학생친화적인 리더십을 통한 학생과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동료교사들이 학교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체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두 관점 모두 21세기를 글로벌 사회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교사의 역할을 전자는 교육본질 회복의 주체로, 후자는 학교혁신의 주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중등교사의 역할

2.1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중등교사의 역할을 사회적 지위에 주목하여 보게 되면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교수자로서의 역할로 구분될 수 있다[18]. 교육자로서의 중등교사는 교사의 본질적 역할에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인격적 감화의 측면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학업생활과 인성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형성과정에 불가피하게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자적 의미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교수자로서의 중등교사는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내용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 사회적 기대, 학교환경,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교수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영근[18]은 중등교사의 역할을 교과수업담당, 학급의 교육담당, 학업평가의 일차적 역할과제와 교육과정 구성, 학교생활과 학생활동에의 관심과 참여, 학부모들과 협조관계 형성,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통한 자기개발의 이차적 역할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사의 역할이 갈수록 실천적 삶과 지식의 연계성

보다는 교과내용자체의 전달에 치중함으로써 교수 전문가의 정체성이 전문기능인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중등교사의 역할을 중등교사 양성교육 분석을 통해 논의한 연구[19]에서는 중등교사의 역할을 교과내용전문가, 학생지도 전문가, 학급경영 전문가로 보던 기존의 논의들이 핵심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실천적인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의 본질은 가르침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체험구조, 더 나아가 삶의 구성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사색의 과정을 통한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양성교육과정에서 메타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과내용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회변화에 주목하여 중등교사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2]에서는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을 학습인인 동시에 지식 창출자인 휘타고지(Heutagogy)로 보고 교육정향성의 관점에서 중등교사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학생을 휘타고지로 길러내는 데에는 초등교사보다 중등교사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보면서 현재 정규화된 틀 속에서의 교수 스타일을 개방적인 교수 스타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중등교사 역할에 대한 이들 논의들을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중등교사는 교수자와 교육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수자로서의 역할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교육인을 길러낼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육자를 강조함을 알 수 있다.

1.2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들은 대부분 예비교사들의 교직원, 예비교사의 정체성 형성,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조사의 맥락에서 논의되어 왔다.

교직원에 대한 인식연구[5]에서 예비교사들은 ‘훌륭한 중등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학습자 개인 이해를 위한 관심과 풍부한 학습지도 방법과 기술, 그리고 탁월한 교과전문지식이라고 보았으며, 중등교원의 신분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이 절반 가까이였으나 노동직으로 보는 관점도 1/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충기·김영태[6]도 교직의 임무와 역할은 신성시되어야 하며 동시에 전문직이라고 보면서도 노동자로 보는 비율 역시 20%로 높았으며, 지식교육보다 인성교육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도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발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이들 연구들은 예비교사들의 신념으로서의 교직원 형성에 학교여건과 사회적 상황이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예비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교직의 윤리적, 이상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상황과 학교환경의 제약적 상황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 역할에 대한 인식은 현장에서 당면하게 될 상황적 요인과는 별개로 현직에 입문하기 직전까지의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도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이들 연구는 교직에 입문하기까지의 어려운 상황과 불안정한 미래가 예비교사들의 교사로서의 신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다. 예비교사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은 교직에 대한 신념이 계속 바뀌는 ‘교차현상’과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없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성’으로 표출된다는 것이다. 한재영[21]은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계속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들의 목표가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교육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예비교사 교육과정이 ‘어떻게’ 교사가 되는가에 치중하는 반면, ‘어떤’ 교사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어떤 교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기회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논의들을 통해 밝혀진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직에 대한 사고방식이 양면적이고 복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차 그들이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학교현장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반성적 글쓰기

반성적 글쓰기(reflective writing)는 반성적 사고를 수반하는 글쓰기로 과거에 일어나거나 경험한 어떠한 사상에 대해서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글로써 표현함으로써 보다 그 사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돕는다[22]. 글을 쓰는 행위 자체는 우리의 지식을 문제 삼게 하고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게 한다. 표현되는 언어의 방식은 자신의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일이며 동시에 그 경험을 바라보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드러내 준다. 이 때 우리의 실제 경험은 다양한 사고 과정을 통하여 재구조화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반성적 사고’란 ‘자아 혹은 자아의 기능을 성찰하면서 전개되는 사고’로 막연한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고하는 관념의 공존적 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사고로서 최선의 방법이다. 반성적 사고는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를 분리시키면서 새로운 이해방식을 도출하므로 특별한 글의 종류가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쓰기 활동일지라도 이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다면 모두 자기 성찰의 글쓰기가 될 수 있다[23].

연구방법으로서 반성적 글쓰기의 유용성은 반성적 텍스트가 가지는 이중적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반성적 텍스트는 결과 텍스트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정보는 바로 결과 텍스트와의 상관성을 통해서만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반성적 글쓰기는 인식과정에 대한 이해, 삶의 맥락이나 경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초연구 방법으로도 적합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반성적 글쓰기는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도 간주되는데 반성(reflection)은 사고와 아이디어 그리고 신념을 형성하는 도구로써 우리로 하여금 경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실수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공을 반복·수정·계획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25]. 따라서 반성적 글쓰기는 실천적 능력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데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교사교육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 연구절차

반성적 글쓰기는 글감->내면적 질문->반성적 사고->자신의 영역 확대->자기성찰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23]. 반성적 글쓰기의 이러한 특징에 유념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재직하는 지방 사립대의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 11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9월 첫째 주 교직 수업 첫 시간에 ‘중등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글감을 제시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을 기술하되 중등교육과정까지의 학교교육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를 중심으로 글을 써 오도록 요청하였다.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육의 의미와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들이 학교교육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2]. 체계적인 글쓰기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학교교육은 어떠한가?”, “내가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의 세 가지 소주제들을 제시하였다. 1주일 후 수업 시간에 각자의 글을 발표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개념에 대한 확인과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 그리고 맥락에 비추어 글쓴이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학생들의 글을 반복해서 읽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메일과 면담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표 1. 응답자 현황

구분	학년		성별		소속	
	2학년	3학년	남	여	사범계	비사범계
N	81	36	44	73	79	38
%	69.4	30.6	37.6	62.4	67.6	32.4
전체	117		117		117	

* 사범계 응답자들의 소속과: 수학교육과(17), 미술교육과(15), 역사교육과(19), 국어교육과(17), 영어교육과(11)

자료 분석의 구체적인 방법은 Colaizzi[26]의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Colaizzi는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 첫째, 참여자의 진술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현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이나 문장, 또는 구를 찾아내고 둘째, 이에 대한 일반적인고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하여 이를 범주화하고 셋째, 범주화된 자료를 기술하고 넷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확

인받음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글쓰기 자료들을 수 차례 읽고 유목화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의 교육의 의미, 경험으로 체화된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등교사의 역할과 관련되어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문장이나 개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는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육의 의미, 중등교사의 역할, 중등교사의 역할 인식 이해하기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으며 예비교사들의 글 중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가능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후 범주화에 관련 있거나 직접 인용된 진술에 대한 오해와 해석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쳤다. 인용 시 예비교사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표기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등교육의 의미: 공감과 발견

예비교사들의 글 속에서 중등교육의 의미를 표현하는 개념들로는 공감, 이해, 형성, 발견, 지식의 전달, 사회적응, 인재양성, 신뢰, 보호, 안내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중등교육의 의미를 글의 맥락에 유의하면서 분석한 결과 공감과 발견으로 제시하였다.

1.1 공감: 학생 이해

공감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 이해란 교사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감싸는 것을 뜻한다. 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과도기에 있는데 청소년기의 특성상 불안과 기대가 교차되는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등학생들은 대학진학과 성적의 틀로 자기존재가치에 대한 회의와 좌절, 무력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이 때 공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과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깨달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태어났다는 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가치를 발현해야 한다. 학생들은 한 배를 탄 아이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해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항구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고 그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역사교육, K).”

교육은 '교육의 과정을 통해 받았던 그 무언가가 가슴에 남아서 힘이 되는 것'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하는 학생에게 다시 재활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공감은 '설령 불가능하더라도 도전해 보는 용기'를 가지게 하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출발이자 과정이 된다고 본다.

“학생1 학생2가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회 속에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꾸는 방안을 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인 것이다(문헌정보, P).”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해받고 인정받고자 한다. 특히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청소년기 중등학생들에게 또래들과 어울려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이들에게 소중한 안식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학교교육은 학생들 개개인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결과에 의해 평가함으로써 정작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중등교육의 중요한 의미를 공감으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2 발견: '나'를 찾기

교육은 학생의 적성과 꿈을 발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학생들은 개개인마다 흥미, 적성, 지적 능력 등이 다 다르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

다. 중등교육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꿈이 막막한 학생에게는 성취해야 할 자신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찾게 해 주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이 꿈꾸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국어교육, H).”

특히 예비교사들은 꿈의 발견의 중요성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부여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꿈이 없는, 또는 자신의 꿈이 아닌 꿈을 위한 배움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에 중요한 것은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다. 이렇게 볼 때 발견은 자신의 잠재능력 및 꿈과 함께 인생의 의미,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의미 발견을 포함한다. 교육의 목적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에서는 진심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그 때 당시의 기술이나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사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한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철학과, Y).”

중등학교는 많은 또래 집단과 선배, 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성인기를 준비하는 곳으로 상호만남과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교육은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삶의 목표와 배움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견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2. 중등교사의 역할: 공감과 소통을 통한 꿈의 발견, 그리고 교과 전문가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은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강조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은 학생들 개개인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인생의 선배이다.

2.1 발견자

무엇보다 교사는 소통할 줄 아는 공감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등학생 대부분은 자신과 인생에 대한 고민과 문제가 많은 시기에 ‘너무나 절실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의지할 존재’를 찾지 못하고 혼자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과 고민을 이해하기 위해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학생들이 언제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믿고 의지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제가 4년의 대학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대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무시 받고 가끔 차별 당했던 학교생활 가운데 선생님의 격려를 기억하며 학생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며,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미술교육, L).”

공감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교사란 자신의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세세한 변화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고 성격에 맞추어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공감자로서의 역할은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의 꿈을 찾아줄 수 있고 공감을 통한 신뢰형성으로 인격적 감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

력은 학생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학생들의 내면세계를 보다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스스로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찾고 이루고 싶다는 동기유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이 꿈꾸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며 학생들의 꿈을 찾기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영어교육, S).”

이렇게 보면, 예비교사들은 중등교사에게 있어서 소통과 공감의 필요성을 진로교육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는 단지 학생을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여기고 그 가능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도움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삶의 모델로서 자연스럽게 인격적 감화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이해는 교사로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가르침을 통해 배움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이며 올바른 가치관단은 지식만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삶의 갈림길에서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교육에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국어교육, J).”

2.2 교과전문가

예비교사들은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에도 주

목하고 있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주체'로 지식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사는 자신이 가르쳐야 할 교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중등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지식을 매개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자신만의 담당교과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지식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정확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교사라도 교사로서의 지식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교사가 될 기본 자격이 없는 것이다(영문학과 L).”

교과전문가로서의 능력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다. 예비교사들은 교과전문성을 자신의 담당교과에 대한 완벽한 이해,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 숙지,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상태를 진단하고 개별적 차이를 구분하여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학습자료 개발 및 제작, 그리고 사회변화의 수용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의 교과전문성은 학생들의 신뢰 확보 뿐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도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도 이끌어 낸다.

“시대와 사회는 끊임없이 변하고 과학과 학문의 발전으로 교육은 더 세분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것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교사는 자신의 전공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배워야 한다. 계속 변화하는 학생들의 성향과 흥미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과 해답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영어교육, K).”

교과전문성을 위해서 교사는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

는 사람이어야 한다. 특히 예비교사들은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배우는 학습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교사는 자신도 결국 '교수를 통해 교수법을 학습하는 학습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교사가 학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교과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학습자만이 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이해를 위한 출발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공감은 교과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공감은 교과전문가로서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생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뿐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이 꿈꾸는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며 학생들의 꿈을 찾기 위해 학생들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아동복지, Y).”

3. 예비교사들의 인식 이해하기

예비교사들이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의미와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이 경험했던 학교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삶의 일부로서 경험된 학교교육은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삶의 맥락으로서 학교교육을 매개로 연결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3.1 경험과 이상의 불일치: 아쉬웠던 과거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경험한 중등교육과 교사들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의미와 교사의 역할과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은 대학입학진학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시위주의 강요된 배움이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보다 좋은 대학으로 학생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주었지만 학생들이 정작 원하는 것에는 무관심했던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들에게 과거 중등학교

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보다는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는데 필요한 성적을 얻기 위해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곳'이고 상대적 평가의 결과인 성적에 의해 '학생을 차별하는 곳'이었다.

“대학교에 오기 전 교육은 한 마디로 입시위주의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었다. 오로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목표 하나로,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방대한 지식들을 쏟아 부었고 우리들은 하나라도 빠질세라 정신없이 주위 담았다. 자신이 소질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쉽 없이 달려온 것이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교육이다(역사교육, K).”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 중요시되는 학교에서는 배움의 의미에 대한 교육적 인식이 자리할 곳이 없다. 공부의 목적이 결과로서의 학업성취도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높은 석차이기 때문에 배우는 지식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즐길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했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처럼 목표가 없는 교육은 공부 자체의 의미도 찾지 못한 채 대학에 와서야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맞다'는 후회와 좌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가 고 2 전까지 계속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으며 느낀 점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는지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어교육, C).”

예비교사들은 대부분의 교사들을 높은 점수, 좋은 성적, 대학진학을 위해 열심히 가르치지만 '가르침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기억하거나, 학생들을 '경쟁의 대열 속으로 몰아가는 대리인', '본질을 잃어버

리고 형식에 얽매인 교육'을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비교사들은 교사와는 다르게 '교육자'라는 말을 통해 교사가 유념해야 할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자들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반성이 필요하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내가 현재 가르치는 제자가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많은 지식을 주입시켜 남보다 앞서서 경쟁, 서열을 매기는 것이 교육자라고 착각하는 교사들이 많은 듯하다(역사교육, P).”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사는 사회에서의 거울이고, 희망의 존재이고 학생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다. 예비교사들은 그래서 교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사는 좋은 점수를 위한 공부가 아닌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는 달리 이들의 기억 속에 교사의 존재감, 교육의 의미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교사들도 있다. 이들 교사들은 이들로 하여금 교직을 선택하게 하고 이들이 꿈꾸는 교사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제가 4년의 대학과정을 마치고 교사가 되면 저희에게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알려주고 대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에게 작은 숨구멍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뻑뻑한 일정 속에서 저희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선생님의 격려를 기억하며 학생들에게 받은 것을 돌려주며 제가 생각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싶습니다(국어교육, K).”

3.2 현실과 미래의 불일치: 불안한 미래

예비교사들은 과거 교사의 모습들에 대한 책임이 교사에게만 있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중등 학교에 대해 기대하는 현실적인 요구와 압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했던 주요 요인 중 하

나임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모습의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본다. 교사는 '올바른 삶의 본보기로서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차 자신들이 당면해야 될 학교교육 현장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의 학교상황이 조만간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그들 역시 비슷한 모습의 교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 속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과연 내가 교사였다면 당시의 선생님들과는 다른 교육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하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나도 똑같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아무리 내가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다짐을 해 봐도 결국은 정책이 변한다든지, 사회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나는 과거 내가 학생이었을 때 느꼈던 교육에 대한 회의감, 선생님에 대한 반감 등을 학생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을 교사의 입장에서 느끼게 될 것이 분명하다(수학교육, K).”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려와 불안은 예비교사들의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확고한 소명의식, 자신만의 교육관, 책임감, 사명감, 열정, 최선, 노력, 본보기, 고민 등이 많이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현실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다짐하는 노력이다. 자신이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또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여기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르침에 대한 소명의식과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사가 되려면 자신만의 교육관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참된 교사가 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에게 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랑과 열정, 그리고 소명의식을 지닌 존재여야 한다(미술교육, J).”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영향력을 많이 주는 존재로 학생에게 삶의 모델이자 인생의 거울이다. 학교에서 어떤 교사를 만났는지에 따라 인생의 의미, 가치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며 교사와의 만남은 ‘평생 따라다니는 기억’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교사가 져야 할 책임감은 단순히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인생을 책임지는 윤리적 측면’까지도 포함한다고 본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중등교육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분석,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대학입학을 위한 교과전문가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깨닫고 개개인의 꿈을 발견하고 찾아주는 역할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형성에는 과거 그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영향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교직원에 비추어 유형화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사의 역할을 성직관에서 전문직으로, 전문직에서 노동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5][6]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은 교사의 소명감을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소명감은 교사가 아닌 ‘교육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교사란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인도자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학생을 배려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친숙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직관에 근거한 논의[12][13]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명감의 강조와 함께 교육의 본질에 근거한 ‘교육자’의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21]와도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교육에 대한 내면구조로 지나간 삶의 경험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과거 예비교사들과 오늘날 예비교사들의 삶의 경험

은 다르며 시대 변화에 따른 교육에 대한 기대, 중등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은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입시전문가로서의 역할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중등교육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교사가 되었을 때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 예비교사들이 인식하는 중등교사의 역할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대학입학보다는 자신의 꿈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전문가로서의 역할도 꿈의 실현과 관련되어 그 의미를 지닌다. 예비교사들의 이러한 인식은 중등교육에서 자아정체성 확립과 진로진도가 중요함[27]을 인정하면서도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지금까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중등교사들에게 대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비교사들은 이를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입시위주의 중등교육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계속 있어왔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으며 앞으로도 쉽사리 변하기는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현직에 나갔을 때 겪게 될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이들의 심각한 고민은 현직에 입문하기까지의 상황에 매우 민감함을 보고한 선행연구[20][21]와 차이를 보이며 장차 현장에서 이들이 겪게 될 딜레마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과정 운영이 개선, 보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드러난 예비교사들의 반성적 성찰자로서의 면모는 중등교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중등교육 개혁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대한 인식이나 교사들의 교육적 행위에 대한 강조는 자신의 존재와 배움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 그들이 경험한 삶에 대한 끊임 없는 반추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이들은 중등교사의 역할을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삶의 모델로서의 교사됨으로 규정하고 ‘인간됨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천적 삶과 지식의 연계성보다는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논의들[1][2]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교사의 역할을 학생친화적인 리더십을 통한 학교혁신의 주체로 보는 논의[16]의 실현가능성도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반성적 성찰능력은 교사의 전문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따라서 예비교사 교육은 이들의 반성적 성찰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24].

넷째, 중등교육과정 운영개선의 필요성과 더불어 예비교사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진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공감과 꿈의 발견은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전문적 능력이다. 그러나 오늘날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그러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대학의 교육목적이 취업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범대학 역시 과정보다 결과로서 임용합격을 중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왜 그와 같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배우는 지식과 교사로서의 자신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고민보다 더 높은 학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능대비를 위해 선행학습을 하듯이 임용준비를 위해 학점을 최대한 미리 이수하고 임용준비를 위한 반복, 암기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사교육현장은 이들이 지나온 중등학교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 가르침은 배움의 경험을 통해 '잘' 전달될 수 있다. 교사다운 교사를 길러내는 교수의 역할[28][29]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수자들의 고민과 더불어 현재의 교원임용방법에 대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며 추후 지속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1] 정영근, “중등교사의 교육적 의미와 역할과제”, 한국교육학연구, 제8권, 제1호, pp.89-109, 2003.

[2] 전숙녀, *중등교사의 교육정향성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 백은주, 박혜미, “예비유아교사의 교육목표, 교수활동과 평가, 교사역할에 대한 교수신념유형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225-248, 2012.

[4] 박성미, “예비 초등교사의 역할정체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제6권, 제1호, pp.229-244, 2006.

[5] 김남순, “교원양성기관 학생들의 교직원 비교”, 생활지도연구, 제22권, pp.103-117, 2003.

[6] 손충기, 김영태,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의식 조사”, 교육연구, 제23권, pp.1-32, 2004.

[7] 박은혜, *유아교사*, 서울, 창지사, 2005.

[8] V. Richardson, (Ed.), *Constructivist Teacher Education*. Bristol: Falmer Press, 1997.

[9] 김남순, “교원양성기관 학생들의 교직원 비교연구”, 한국교사교육, 제11권, pp.133-154, 1995.

[10] 윤혜승,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인격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3권, 제2호, pp.149-175, 2008.

[11] S. Heck and R. Williams, *The Complex Roles of the Teachers*, 황기우 역, 원미사, 1998.

[12] 고재천, “교사 역할 수행 관점의 재검토”, 초등교육학연구, 제17권, 제1호, pp.1-24, 2010.

[13] 박종덕, “인성교육과 교사의 전문성: 초등교사의 역할에 주는 시사”, 초등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pp.107-127, 2007.

[14] 홍은숙, “교직관에 따른 전문직 교원윤리의 성격 재음미”, 교육철학연구, 제33권, 제3호, pp.187-212, 2011.

[15] 김운중, “미래교육을 위한 교직관의 적합성 검토”,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6권, 제4호, pp.79-84, 2009.

[16] 김성열, “학교혁신을 위한 교사와 교장의 역할”, 지방교육경영, 제9권, pp.99-117, 2005.

[17] 조한숙, 문혁준, “교사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신

- 뢰, 공감적 이해수준 및 아동의 학습동기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30권, 제5호, pp.23-39, 2009.
- [18] 정영근, “글로벌 경쟁시대의 교직원과 교사의 역할”, 교육의 이론과 실천, 제13권, 제1호, pp.175-191, 2008.
- [19] 박고훈, 박분희, “교사교육의 반성과 대안 탐색 (중등교원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학회, 제19권, 제1호, pp.245-271, 2002.
- [20] 김병찬, “사범대생들의 사범대학 진학 동기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학회, 제20권, 제1호, pp.57-83, 2003.
- [21] 한재영, “사범대학 예비교사의 삶과 정체성 변화 연구”, 교사교육연구, 제51권, 제1호, pp.75-89, 2012.
- [22] 박영민, 김종백, 우은실, “반성적 쓰기 활동이 학생필자의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학연구, 제12권, 제1호, pp.87-102, 2006.
- [23] 김준희, “‘자기’에 대한 이해의 글쓰기 교육 연구”겨레어문학, 제47권, pp.33-59, 2011.
- [24] 김민정, “대학 글쓰기교육에서의 ‘반성적 쓰기’의 활용과 의의”, 한국문학이론비판, 제13권, 제4호, pp.451-480, 2009.
- [25] S. S. Swain, Studying teachers’ transformation: Reflection as methodology, The Clearing House, Vol.72, No.1, pp.28-34, 1998.
- [26] P.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King(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27] 허정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진로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8호, pp.533-441, 2009.
- [28] 이병승, “교사교육에 있어서 교육철학 교수의 역할”, 교육연구, 제21권, pp.1-20, 2007.
- [29] 이상준, 윤관호, 김성윤, “교육서비스의 만족도 지수 모형개발 및 IPA를 통한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p.510-521, 2013.

저 자 소 개

이 혜 정(Hye-Jeung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대학교교육학과(문학사)
 - 1989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
 - 2001년 8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직과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열, 교육격차, 교육평등, 학교교육 내실화